

# 김 환태 비평 연구사 一考

남 송 우\*

## 목 차

- |              |            |
|--------------|------------|
| 1. 머 리 말     | 2) 김윤식의 경우 |
| 2. 연구사 방법론   | 3) 이동민의 경우 |
| 3. 김환태 비평연구사 | 4) 홍경표의 경우 |
| 1) 윤수영의 경우   | 4. 맺 는 말   |

## 1. 머 리 말

1930년대를 한국문예비평사에서는 전환기<sup>1)</sup>로 명명하고 있다. 전환기란 명명 자체가 의미하듯이 이 시기는 이전까지의 한국문예비평을 주도해 오던 소위 프로문예비평이 자체내의 회의와 외적 강압요인으로 와해되고 새로운 비평양상이 태동하였음을 말한다. 이 전환기 비평의 주자로서는 양주동, 이현구, 김기진, 백철, 홍효민, 김환태, 최재서, 김문집 등<sup>2)</sup> 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 프로문예비평에 갇혀 있던 비평의 문학성을 새롭게 제기하고 그 의의를 구체화해 비평의 문학성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긴 비평가들은 김환태와 김문집이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우선 김환태에 주목하여 그의 비평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를 해명해 보고자

\* 수산대

- 1) 윤수영은 1930년대 비평을 전환기라 명명하고 김윤식은 전형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양자가 특별한 의미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먼저 명명된 전환기란 명칭을 일단 사용한다.
- 2) 윤수영, 전환기의 문학비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8, pp. 78-82 참조.

한다.

이러한 작업은 본격 김환배론을 위한 준비 혹은 선행작업이기도 하며 한국문학 연구에서 미개척지로 남겨져 있는 문학연구사의 한 시고이기도 하다.

## 2. 연구사 방법론

문학연구사는 우선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문학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란 점에서 일반 문학연구와는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즉 어떤 문학연구가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해 놓은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며 그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체계화함이 문학연구사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연구의 대상이 될만한 가치있는 작품이나 작가는 한 번의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의 연구가 남겨 놓은 부분들을 계속 보충하고 기워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로 작품은 시대마다 달리 명명되기도 하며 동일한 작품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보임으로써 논쟁의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힘들다.

문학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란 언제나 기존의 연구업적에서부터 열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머물러 있을 때 문학연구의 새로움이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결과를 극복해야 한다는 명제에 늘 부딪히게 된다. 여기에 연구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문학연구에 있어서 어느 부문이나 연구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 부분적으로 관습화된 연구사를 연구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것은 어떤 과제를 연구하게 되든지 간에 문학연구 논문에서 빠지지 않고 목록화되는 기존연구에 대한 항목이다. 이 항목 속에서 그 분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개관함으로써 연구사를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대개의 내용들이 그 연구대상에 대해서 팔목할만한 논문내용을 시대별로 정리 체계화 하여 자신에게 의미있는 논문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내용은 비판

적 안목에서 수용하여 자기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사는 여기에서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가, 다시말하면 문학 연구사는 불가능한가, 이런 질문에 대한 가능한 하나의 해답을 찾아 보려는 것이 이 시론이 갖는 의의이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체제화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혹은 작가에 대해서 어느 때에 누가 연구를 했고, 이 연구를 누가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 왔다는 연구내용에 대한 비판사적인 측면으로도 연구사가 관심을 두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동일한 작품 혹은 작가에 대해 접근해 간 각 연구자가 지녔던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도적으로 방법론을 드러내 놓지 않고 연구를 전개시켜 연구결과를 얻는 연구논문도 있지만, 일단 연구라는 범주에서 행해지는 모든 문학연구는 방법론을 가져야 하고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연구방법의 차이는 연구결과를 동일한 결과로 도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결과를 예상하게 한다.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결과는 서로 간에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연구대상이 된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연구자의 다양한 방법론 적용결과라고 본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방법론의 차이는 연구결과와의 차이로 일단 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학연구사는 연구대상의 정리나 연구내용의 도식화, 연구결과의 비판과 문제점 제기 등의 계기적 서술을 넘어서서 한 연구대상에 대해 연구자가 적용했던 방법론의 내용과 그 방법론의 적용이 낳은 결과 그리고 그 방법론이 지닌 한계 등이 어떻게 극복되고 답습되어 왔는지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 또한 방법론 자체의 내용도 점검해야 한다. 방법이란 어떤 한 목표에 이르는 길이기기는 하지만 잘못 길에 들어섬으로 목표에서 멀어지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도 있기에 방법론을 연구대상에 적용하기 전 그 타당성을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한 방법론으로 작가연구나 작품론이 있었지만 그 작가나 작품

의 본질을 드러내기에는 미흡한 방법론이라거나 그 한계나 강점을 드러내 줌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으로 접근시도가 가능하게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논의가 어느 한 작가 혹은 작품의 연구사에서 체계화 될 때 문학연구는 다양성을 획득하게 되며 그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래서 이미 조동일은 국문학 연구사에 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문학 연구사는 연구의 방법론 또는 이론적 근거 및 그 사상적 입장까지를 통괄하여 다루어야 한다<sup>3)</sup>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몇 가지 문제제기의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김환태 연구의 흐름과 그 방향을 잡아보고자 한다.

### 3. 김환태 비평연구사

#### 1) 윤수영의 경우

윤수영의 김환태론<sup>4)</sup>은 전환기 비평의 본질을 파악하는 자리에서 다루어진 본격 김환태론이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 윤수영은 김환태의 문학비평활동을 실증적이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루어 봄으로써 한국의 순수문학의 흐름을 사적으로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즉 그가 김환태 비평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자료를 토대로한 객관주의적 실증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윤수영이 김환태 비평연구에서 파악한 내용은 첫째, 정치성이나 사회성을 떠나서 작품을 평하였다는 점, 둘째, 그의 비평은 작품의 내면적 질서와 생명의 추구를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 세째, 작품에 애정을 가지고 동정적으로 보았다는 점, 네째, 작품을 대상으로 보는데 있어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은 물론 특히 도덕적 입장에서 작품을 보

3)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pp. 31-32.

4) 여기서 논의되는 김환태 연구는 윤수영의 「전환기 문학비평연구—주로 김환태의 순수비평을 중심으로」를 텍스트로 한다.

는 것을 배경하였다는 점, 다섯째, 미학적 견지에서 작품을 보았을 때 주로 건축적인 미학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 여섯째, 김 환태의 비평은 서구비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점 등이다. 이러한 내용파악을 통해 윤수영이 김환태 비평에 대해 내린 결론은 그는 누구보다도 예술을 순수하게 파고든 비평가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비평은 전환기의 순수비평을 대표한다<sup>5)</sup>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윤수영이 실증주의적 문학연구방법에 의해 도출해낸 결과이다. 즉 김환태가 남겨놓은 비평자료를 대상으로 그 자료가 드러내고 있는 비평적 입장이나 비평내용을 최대한 드러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선 내용을 예시해 보면 이러한 방법적 전략은 잘 나타난다. 김환태는 정치성이나 사회성을 떠나 작품을 평하였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윤수영은 김환태의 작가론인 「시인 김상용론」을 예거한다. 여기서 윤수영은 시인 김상용을 논함에 있어 김환태는 비평의 기초를 시작품 자체의 충실한 해석에 두었다고 봄으로써 김환태의 비평태도를 귀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적 태도는 비평을 작품의 내면적 질서와 생명의 추구에 목적을 두었다는 점을 논증함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비평문학의 확립을 위하여」와 「문예비평가의 태도에 대하여」의 내용을 통해 문학작품의 내적 생명과 통일성에 관심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윤수영은 김환태 비평론을 주로 실증주의적 방법에 의해 체계화함으로써 1930년대 문예비평사에 있어서의 김환태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윤수영의 이 연구가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이 갖는 자료정리의 차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김환태 비평의 첫 본격연구라는 점과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과소평가 할 수 없다고 본다.

5) 윤수영, 전환기의 문학비평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68, pp.5-6.

6) 상계서, p.124.

## 2) 김윤식의 경우

김윤식의 김환태론은 기왕의 김환태론인 백철, 조연현의 「문학사」, 조연현의 「우리나라의 비평문학」(문학예술 3권 1호), 윤수영의 「전환기의 문학비평연구」 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김윤식은 이러한 논의들이 부분적으로 어떤 면만 드러낸 것이므로 한 비평가에 대한 전기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전면적 고찰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그는 김환태의 전기적 사실 특히 그의 문학수업과정, 인상주의적 비평을 주장하게 된 이유와 비평관의 구명, 순수논쟁에서의 그의 입장, 비평문장의 처녀성과 국책문학으로 야합하지 않고 붓을 끊어 버린 이유 등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sup>7)</sup>

여기서 김윤식이 김환태 비평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철저히 역사·전기적 방법에 의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김윤식은 「문학수업의 궤적」에서 김환태의 출생과 학력, 영문학을 전공하게 된 까닭 등 소위 역사학적 문학연구방법에서 말하는 상속한 것, 학습한 것, 경험한 것 등 3E의 내용을 추적해 봄으로써 그의 비평세계를 해명할 구실을 찾아내고 있다. 특히 김환태의 沒年에 대한 확인작업과 일본유학 이후 영문학도로서 어떠한 문학세계에 심취했는가 하는 점의 추적은 그의 비평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선이해 작업으로서 그 의미를 충분히 갖는다.

그리고 김윤식은 「1934년 경의 비평계 동향과 김환태의 비평관」에서 김환태가 평단에 얼굴을 내밀기 직전의 한국비평단의 분위기 및 행방을 그 시대적 문맥 속에서 재구성해 보임으로써 역사전기적 연구방법의 전형을 보인다.

즉 당시 「평단 SOS」의 의미를 KAPF 비평에 대한 SOS이며 달리 표현하면 「九人會」를 지향하는 예술파의 문단적 진출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다.<sup>8)</sup> 그리고 비평의 기능 중 작품평 분야만을 바랍직한 것으로 내세우기

7) 김윤식, 순수문학의 의미—늘인 김환태 연구—근대한국문학연구, 일지사, 1973, p. 407.

8) 상계서, p. 415.

시작한 때였기에 김환태의 상식에 가까운 그의 文藝觀이 시대적 의미를 뱉 수 있었다고 본다.

김환태가 최초로 발표한 글은 프린사 크라슨의 「예술과 과학과 미」(조선일보, 1934. 3. 10)이지만, 김윤식은 그의 비평입장을 분명히 한 글은 「문예비평가의 태도에 대하여」와 「예술의 순수성」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문헌 확인작업도 역사 전기적 연구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앞선 두 편의 글을 중심으로 김환태가 주장하는 비평이란 「재구성적 체험」점에서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창조의 방법이 란 <순수한 주관은 순수한 객관>이라는 괴테·코헨의 미학사상으로 극복할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김환태는 비평가의 겸허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비평의 태도이지 비평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김윤식은 비평의 방법을 제시하여 비평의 방향전환을 시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 종래 비평의 방법론적 과학주의엔 하등의 관심이나 비평을 하지도 않고 겸허한 비평의 태도만을 지극히 소박하게 내세웠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심정주의는 좋게 말하면 비평의 폭력을 거부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당시 비평에 불만을 띤 작가들에게 아부하는 저 자세라고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순수문제에 대해서는 김윤식은 김환태의 비평은 기능상에서 본다면 창조적 비평이 아니라 하나의 인상주의자로 판명한다. 그리고 이는 W·페이터나 M·아놀드의 본질 사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아놀드와 페이터의 해명을 통해 김윤식은 페이터의 방법이나 아놀드의 방법을 부분적으로 인용했다고 해서 김환태가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sup>9)</sup>

그리고 김환태의 순수론을 순수논쟁이 갖는 비평사적 문맥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즉 「九人會」를 중심한 예술파와 프로문학에 가담했던 자들과의 논쟁, 즉 예술파 일파와 사실파 즉 과학주의파와의 대립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을 김윤식은 닫힌 세계관인 「문장」파와 열린 세계관의

9) 상계서, p. 420.

「인문평론」과와의 대립으로도 파악한다. 이는 또한 인문평론을 중심한 30代와「문장」의 에피고오네이었던 20代와의 세대논쟁이기도 했다<sup>10)</sup>고 본다.

이 논쟁은 임 화의 신인론에 이어 유진오에 의해 문학정신의 순수와 비순수론으로 신인들의 비순수성을 매도함으로써 김동리의 반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김동리의 반격은 어디까지나 창작방법의 입장에 원론적으로 밀착되어 근시안적 지평을 벗어 날 수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비평대 비평의 대결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격에 동참해야 했던 상허(尙虛)와 지용(芝溶)이 완전히 침묵을 지켰는데 오직 30代에 속한 김환태가 신인측에 서서 이론적으로 나선 점이 김환태가 비평사에서 갖게 되는 의의로 평가한다. 그리고 김환태가 신인측에 서게 된 몇 가지 이유를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첫째, 그가 九人會의 후기 동인이라는 점, 둘째, 이 세대론이 실상은 九人會 및 그 에피고오네으로 보이기 쉬운 예술파에 대한 공격이기에 상허, 지용이 나서야 하나 그들은 작가이기에 김환태가 나섰다라는 점, 셋째, 김환태의 솔직 담백한 인간성을 들고 있다. 여기서 김환태의 순수론의 배경 혹은 배후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김환태의 순수론을 해명해 보려는 김윤식의 역사, 전기적 문학연구의 한 경향을 읽어 낼 수 있다.

그리고 김윤식은 김환태가 「순수시비」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30代의 의식구조를 분석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인간정신 탐구의 문학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환태가 1934년에서 1940년까지 처음 아놀드나 페이터의 바탕에서 자기 특유의 접려를 가지고 하나의 신념을 형성했고 이 신념을 추호의 회의나 흔들림 없이 일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비평사에서 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sup>11)</sup>고 평가한다.

이러한 김환태 비평의 체계화에 내재해 있는 김윤식의 김환태 비평에의 접근방법은 소위 말하는 역사, 전기적 연구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역사, 전기

10) 상계서, pp. 428-429.

11) 상계서, p. 442.



적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즉 텍스트를 확정하고, 작가의 생애와 외적 환경을 특히 작가의 창작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에 비추어서 작품을 정밀하게 탐구한다. 그리고 작가와 작품을 그 이전의 작가와 작품 또는 동시대의 작가와 작품들과 비교하여 그 작품에 변화를 주었을 영향관계를 연구하는데 주력한다. 또한 특히 문학을 그 시대의 소산으로 보아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리고 그 시대의 반영이란 점에 집착한다.<sup>12)</sup>

이러한 연구방법에 의할 때 김윤식이 김환태의 비평을 당대의 시대적 흐름과 관련지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윤식의 김환태 연구는 역사주의 연구방법이 갖는 한계—문학작품의 원천에 대한 철저한 기본조사가 흔히 연구수단과 목적이 되어 기원과 가치 평가를 혼동하는 발생론적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문학작품에 관한 자료를 너무 많이 쌓아 올리기 때문에 작품의 형식, 구조, 균형 그리고 이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남겨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자료의 제시 및 체계화라는 점에서 김환태의 모습을 한층 새롭게 재구성했다고 본다. 그리고 앞선 선행연구인 윤수영의 김환태론과 비교해 본다면, 다같이 김환태의 비평관의 본질을 순수문학비평으로 체계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연구결과를 내보이나 영향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즉 윤수영은 아놀드와 페이터와의 영향관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김윤식은 그렇게 단순히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점에서 김환태 비평에 있어서 아놀드와 페이터와 영향관계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는 셈이다.

### 3) 이동민의 경우

이동민은 「김환태 비평가론」에서 김환태가 인상주의 비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김환태 자신이 인상주의자라 천명한 점에 의거하고 있다는

12) Sheldon Norman Grebstein(ed), Perspectives in Contemporary Criticis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68, pp.2-3.

점, 지금까지의 김환태 연구가 김환태의 전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편의 평론문만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매슈 아놀드나 페이터와의 비교문학적인 확인만을 추구하였지 그의 비평의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는데 소홀한 점<sup>13)</sup>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김환태에 대한 연구사 개관을 통해 자신이 김환태론에서 전개해 가야 할 연구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동민은 김환태 연구의 학문적 출발을 윤수영의 「전환기의 문학비평 연구」에서 찾고 있다. 윤수영의 김환태론은 첫째, 정치성이나 사회성을 떠난 작품해석, 둘째 작품의 내면적 질서와 생명의 추구, 셋째, 작품에 애정을 가지고 동정적으로 본 점, 넷째, 작품을 대상으로 보는데 있어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한 점, 다섯째, 기하학적 견지에서 작품을 본 점 등을 체계화 함으로써 김환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은 주었으나 김환태 비평이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하였다는 오류를 빚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김윤식의 「늘인 김환태 연구」는 193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김환태 비평이 갖는 의의를 주로 문단적 상황과 관련해서 연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연구는 김환태 비평에 흐르고 있는 의식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소홀한 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윤식의 경우는 김환태의 물이해적 관심이 비평의 태도이지 방법이 아니며 이러한 것으로 과학주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고 하여 실패한 것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보았다.

여기에 비해 김주연은 「비평의 감성과 체계」에서 김환태의 비평은 삶의 문제, 진지함의 문제, 거기서 우러나오는 진실의 문제, 감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김환태를 문학예술비평이 고도에 이르면 감성적 재능과 학문적 체계화의 능력이 별개의 것이 아닌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30년대에 체현한 사람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신동욱은 「한국현대 비평사」에서 김환태는 당시의 현실을 자기의 현실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인식된 곳에서부터 자기를 확립하고, 문학을

13) 이동민, 김환태의 비평이론, 현상과 인식, 6권2호(82년 여름호), p.114.

보고 이해하는 자세가 이 비평가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비평가의 시대인식적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사 개관을 통해 이동민은 부분적으로 타당한 평가를 내린 것도 있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김환태 비평의 핵심이 무엇이며 이론적 배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이동민은 김환태 비평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상력 이론과 유기체론을 중심으로 그의 비평세계를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김환태 비평에의 접근은 김환태 연구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제기를 통해 그의 연구방향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동민은 우선 표현론의 문제를 통해 상상력의 본질을 해명하고 있다. 문학에 있어서 표현의 문제는 18C 낭만주의 시대에 있어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인데 이는 상상력과 함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김환태는 「표현과 기술」에서 문학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로 표현을 들었으며 사상이나 주제보다도 상상력에 의한 감정표현만이 진정한 예술로 보았다고 논증한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은 경화된 사상이 아니라, 사상(事想)에 있어서의 관련적인 내용을 직관하고 구상화하는 감각적 상상이라고 함으로써 상상에 의한 직관을 강조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상상력의 기능을 대상의 직관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음은 칸트의 전해와 비슷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동민은 「시와 사상」의 내용 파악을 통해 김환태는 상상력을 직관하고 구상화 하는 능력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사상과 대립된 개념으로서의 감정을 전달시켜 주는 기능 또한 상상력의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예술의 순수성」에서는 상상력이란 현실의 재구성 능력이라고 본다. 그래서 김환태가 말하는 상상력이란 현실의 재구성 능력과 동일시되며 이러한 능력은 작가에게서만이 아니라 비평가에게도 동시에 필요하다

고 주장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김환태에게서 비평이란 재구성적 체험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그리고 이동민은 김환태의 상상력 이론은 후기에 오면 현실파악의 능력으로까지 확장되며 여기서 지성적 측면과 결합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하며 초기의 지성배제의 전태가 전환되고 있다고 본다.

다음 유기체론에서 이동민은 「시와 사상」에서 김환태가 밝히고 있는〈주제가 대립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형식의 불가분의 융합으로서 구성된 시 전체다〉를 통해 문학에 있어서의 유기체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규명한다. 그리고 생명적 유기체로서의 예술에서 생명의 본성은 감정이며 감정의 내적 표현이 곧 예술이라고 생각할 때 생명의식이란 곧 개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김환태의 천재와 개성론은 칸트의 천재론과 관련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동민은 추론하고 있다.

이상의 표현론과 유기체론을 바탕으로 이동민은 김환태의 비평관을 논하고 있다. 이동민은 김환태의 중심 비평관을 아놀드에게서 차용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점에서 찾아 보려 한다. 이 개념은 아놀드에게서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동민은 이것을 칸트에게까지 거슬러 올려 칸트의 무목적의 목적 개념과 직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개념의 차용은 1930년대 프로비평이 쇠퇴하였기는 했지만 목적의식의 강조와 사회와의 관련 아래서만 문학을 파악하려는 풍조에 대해 아놀드의 이러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비판용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고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그 필연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놀드는 비평을 자유로운 지성의 활동으로 파악했지만 김환태는 비평에 있어서 지성적인 측면이 배격되고 있어 김환태는 아놀드 비평의 태도적인 측면만 차용하고 깊은 의미는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비평문학의 확립을 위하여」에서 김환태는 프로비평의 도식적 태도를 지양하고 작가가 가진 의도가 작품 속에 얼마나 잘 구현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비평이 할 일이라고 함으로써 비평에 있어서의 가치평가적인 측면보다는 해설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신춘창작총평」에서

비평가가 감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작가의 상상력과 이상적 정신 활동에 의하여 형성되고 부여된 새로운 태도와 의미상징이라고 함으로써 단지 작품을 읽고 나서 감흥을 적어 놓은 감상 예찬문의 차원을 뛰어 넘은 비평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김환태는 페이지의 인상주의적 인상비평의 차원을 뛰어넘었다고 판단한다.

이상의 논지를 통해 이동민이 파악하고 있는 김환태의 비평은 영향관계에 있어서 아놀드나 페이지의 경우는 태도 내지 방법론의 차용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칸트와의 관련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서구 낭만주의 문학이론의 틀 속에 자신의 의식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희미하게나마 전통에 대한 의식을 통하여 당시 문단의 위기를 극복하려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비평의식이 실제비평에서 폭넓게 확립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이동민은 김환태 연구사를 통해 자신이 연구할 단서를 찾아 내고 그 단서를 풀어가는 방법론을 모색하기보다는 상상론과 유기체론을 중심으로 김환태 비평을 해명하려고 했기에 김환태 비평론을 문학론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는 있었으나 그의 비평에 흐르고 있는 의식이 어느정도 파악되었는지는 미지수다.

앞선 김윤식의 경우는 역사 전기적 방법에 의해 실증적 사고로 김환태 비평을 체계화 하고 있으나 이동민은 김환태 비평의 역사적 사실 해명보다는 정신사적 방법으로 김환태 비평에 나타나고 있는 문학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해 보려고 했다. 즉 문학이 지닌 초시간적인 이념이나 본질의 해명을 통해 김환태 비평의 핵심을 천착해 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작업의 결과가 문학의 상상력 이론과 유기체 이론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 4) 홍경표의 경우

홍경표는 「눌인 김환태의 비평론고」<sup>14)</sup>에서 김환태의 비평론에 대한 논

14) 홍경표, 눌인 김환태의 비평론고, 현대문학집, 1982, p.1.

급은 문학사 내지 비평사에서 극히 소홀하게 다루어졌고 또 그에 대한 별개 논의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김환태의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필요성의 제안과 함께 그의 비평론에 대한 연구접근방법을 의식적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대신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첫째는 초기 비평론에서 취한 자신의 비평태도의 개진이고, 둘째는 매슈 아놀드의 인생비평, 월터 페이터의 인상비평 등 서구비평이론의 소개, 셋째는 자신의 비평태도에 입각해서 취해진 작가 작품론 및 단평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에서 김환태 비평의 본질을 체제화 하기 위해 그는 먼저 「비평가와 주변」이란 부분에서 김환태의 개인적 경력 및 문단활동 사항을 소개한다. 이러한 김환태의 개인사에 대한 확인은 이 논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김환태의 문학세계에 대한 확인 이전에 작가의 확인이란 점은 이 연구방법이 역사·전기적 방법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기 때문이다. 홍경표는 논문 서두에서 김환태 비평연구에 대한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펼쳐놓은 논문의 내용은 역사·전기적 방법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김환태의 전기적 정보를 바탕으로 김환태의 비평론을 검토하고 있다.

홍경표가 밝히는 김환태 비평론은 비평태도라는 측면에서 네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홍경표가 내세운 김환태의 비평태도는 첫째는 인상비평, 둘째는 예술지상주의, 셋째는 인생비평, 넷째, 순수론이다.<sup>15)</sup> 여기서 김환태의 비평론을 비평방법 혹은 비평관으로 명명하지 않고 왜 비평태도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하나의 문제로 지적된다. 즉 인상비평, 예술지상주의, 인생비평, 순수론 등이 비평태도라고 말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비평태도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환태 비평론을 비평태도라는 측면에서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비평태도라는 말은 김윤식이 이미 늘인 김환태론에서 김환태는 비평의 방법을 제시하여 비평의 방향전환을 시도할 생각은 전혀 없

15) 상계서, p. 4.

고 종래 비평의 방법론적 과학주의엔 하등의 관심이나 비평을 하지도 않고 다만 겹쳐한 비평의 태도만을 지극히 소박하게 내세웠다.<sup>16)</sup>는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홍경표 자신이 김환태 비평에 접근하는 방법론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음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새로운 방법론 없이 역사·전기적 방법에 의해서 문헌을 확인하고 그 문헌의 내용에 따라 분류작업을 하는 선에서 김환태의 비평태도라는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 김환태 비평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비평론의 수용상」에서는 아놀드와의 영향관계는 짙막한 생애 동안에 그가 남긴 불과 몇 편 되지 않는 평문이나 비평관에서 아놀드의 비평론이 여과되어 수용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모든 문학의 궁극의 목표는 인생의 비평이라는 태도는 김환태가 철저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페이지의 영향은 가장 일반적인 비평론을 수용하면서 인상주의라는 究竟 속에 머물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 T. S. Eliot, E. A 포우 등과 의 영향관계도 문제 삼고 있다.<sup>17)</sup>

실제비평에 있어서는 정지용과 김상용론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지용론에서 김환태는 정지용 시인을 감각의 시인, 신앙의 시인, 동심의 시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주지적인 이미지까지 주관적 감각의 틀로서 재단하고 있는 김환태의 주관적 비평태도를 홍경표는 비판하고 있다. 또한 월파 김상용론에서는 자아를 객관 속에 몰입시키거나 반대로 유리시키는 태도가 아니라 자아와 대상이 등거리로 교감할 따름이라는 것이 월파의 시를 통해 말한 김환태의 이른바 판조의 평가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인론인 실제비평에서 김환태의 비평태도가 얼마나 잘 실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검증되었을 때 김환태 비평의 성격은 더욱 명확히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다.

16) 김윤식, 순수문학의 의미—놀인 김환태 연구, 근대한국문학, 일지사, 1973, p.416.

17) 전게서, pp.18-19.

## 4. 맺 는 말

지금까지 윤수영, 김윤식, 이동민, 홍경표의 김환태론을 살펴 보았다. 이들이 김환태를 연구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론으로 접근해 보았는지를 중심으로 김환태 연구사를 시도해 보았다.

지금까지 김환태 연구는 역사 전기적 문학연구 방법 즉 실증주의적 방법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김환태 비평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비평이 갖는 세 가지 측면 즉 비평원론(비평론)과 그 비평원론에 의해 행해진 실제비평과 비평에 대한 비평인 순수논쟁을 일관성 있게 체제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김환태 비평에 작용한 영향문제, 그리고 당대의 문학비평적 상황 속에서 김환태 비평이 차지하는 의미방울 구축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환태 비평의 의미는 우선적으로 프로비평 이후 그 공백기를 메꾼 비평이라는 사회역사적 문맥 속에서 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김환태 비평 연구방향은 이러한 연구결과의 토대 위에서 정신사적 혹은 해석학적 방법론의 적용도 필요하며 또한 가능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 한국근대문학연구, 일지사, 1973.  
 ———, 김환태 비평의 비평사적 의의, 문학사상, 통권 163호, 1986. 5.  
 김환태전집, 현대문학사, 1972.  
 신동욱, 한국현대비평사, 한국일보사, 1975.  
 윤수영, 전환기의 문학비평연구, 이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8.  
 이동민, 김환태의 비평이론, 현상과 인식, 6권 2호, 1982.  
 이유영, 독일문예학개론, 삼영사, 1979.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홍경표, 논문 김환태 비평론고, 현대논문집, 1982.  
 ———, 김환태 비평선집, 형설출판사, 1982.  
 M. 마렌 그리제바하, 장영태 역, 문학연구방법론, 홍성사, 1982.  
 Sheldon, Norman Grebstein(ed), Perspectives in Contemporary Criticis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68.